

농림부, 올해 3조 7,600억원 농업경영비로 지원

● 축산경영자금 3천5백20억원

농림부는 올해 원활한 농업경영을 위하여 총 3조7,600억원 규모의 농축산경영자금을 농가에 지원하고, 일반농업경영자금에 대한 상환기한을 '당해연도 12월말'에서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한다고 지난 2월 6일 발표했다.

이번 일반농업경영자금에 대한 용자기간 연장조치로 연말에 쌀(벼)을 팔아 용자금을 갚아야 하는 벼재배 농가들의 상환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금년 7월부터 전문농업경영자금에 대해 한도대출제의 시범도입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예특작농가의 자금이용이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경영자금은 축산경영의 원활화와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축산정책자금으로서, 농림부는 연리 4%, 1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축산경영자금 3천5백20억원을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을 통해 2월말부터 대출할 계획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등급판정 육계분과 자문위원 위촉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지난 2월 7일 축산물등급판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 돼지, 산란계, 육계 등 4개 분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학계, 연구기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2명을 위촉하여 올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2년동안 활동에 들어갔다.

육계분과 자문위원으로는 (사)한국계육협회 이병동 전무, 서울대 이무하 교수,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김강식 회장, 농협중앙회 남성우 계육분사장, 축산기술연구소 이종문 축산물이용과장, 한국식품개발원 양승용 팀장, 소시모강광과 상임이사, 삼성홀플러스 이상만 팀장 등 총 8명이다.

농협중앙회

● 새정부·새농정 실천결의대회 및 농업인 실익증진 위한 사업추진 결의대회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지난 2월 7일 안중운 농림부 차관과 전국 회원조합장, 중앙회 임원·간부, 지역본부장·시군지부장 등 1천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새정부·새농정 실천결의대회 및 2003년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과 회원조합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생명산업 농축산업 사수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주도해 농업인 소득증대 ▲각종 사업 조기 착수로

차질없는 영농지원과 신정부의 개혁농정 실천에 앞장서기로 하는 등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정대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원 실익제공을 위한 조합의 적정수준의 규모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경제권·생활권 중심으로 5개년 계획을 갖고 회원조합을 합병해 조합수를 9백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이어 “많은 사람들이 농협을 비판하지만 농협임직원들은 의식을 전환해 조직의 발전과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회장은 또 “조합들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영참여를 제고시켜 건전조합을 육성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농협이 되자”고 강조했다. 정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금융 평균 대출금리가 10% 이상 되는 고금리조합이 전국에 2백여 개 있다”며 “고금리조합들은 하루속히 구조조정을 통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면 폐쇄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도 내비쳤다.

이날 행사에서 안중운 차관의 정부의 농정시책 발표에 이어 농협중앙회 농업·축산·신용대표이사들이 부문별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농업인 지원·지도사업, 투명경영을 위한 자체 감사계획 등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 HACCP 등 전국순회교육 실시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지원실(실장 전병구)은 농림부와 함께 “축산물 중 유해잔류물질방지 및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주요내용으로 축산농가, 행정기관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 도축업·가공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

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권역별로 오는 19일(호남권·전북어린이회관), 20일(영남권·경북농업인회관), 24일(경기·강원권·농진청 농업연수부), 25일(충청권·충북농기원)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 대상자들은 권역별로 약 3백여명으로 축산농가 및 사료업체 담당자, 시도·시군·검역원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소속 축산물위생담당자, 도축업·잡유업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다.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방안 등 정책방향 설명(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이홍섭 사무관)과 ▲제조물책임법 이해와 대처방안(농협중앙회 컨설팅지원실 김기양 팀장)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국립수의과학검역원 특수독성과 손성완 과장) ▲축산물 작업장의 HACCP추진 및 사후관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곽형근 과장)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선 권역별 해당도의 축산담당과장이 직접 ▲축산물 잔류물질방지 및 HACCP 추진실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에선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한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별도로 홍보리후렛 5만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003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2월 13일 건축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03년도 1차 이사회를 갖고 2002년도 예산결산과 사업추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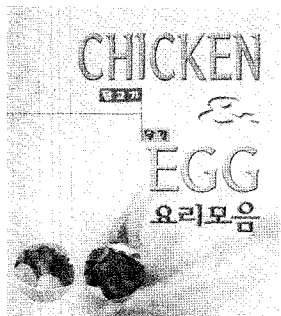
적 승인, 2003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도본부 및 시군 방역단 운영규정 개정(안), 급여규정 개정(안), 향후 방역본부 운영방향 등 총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2003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한해동안 양축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 농장채혈검사 확대 실시, 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강화, 축종별 가축사육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군 방역요원 135명에서 168명으로 증원하고 출장소를 도본부 직할로 하여 운영·관리, 가축 전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등에 관한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오는 2월 18일 오후 3시 건축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양계수급안정위원회

● 닭고기 및 계란 요리책지 배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양계산물 수급불균형이 최근 일시적 소비증가로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으나 설 이후에는 소비위축 및 공급과잉으로 양계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하여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닭고기 및 계란의 소비기반 확대를 통해 양계산물 수급안정을 도모코자 닭고기 및 계란 요리책지 18만부를 제작하여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전국 농협, 소비자 단체 등에 배부했다.

■ 문의 : (02)397-7927 ☺

